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

11월23일 포천시청 초청 기업인과의 간담회

2006년도 연말정산 실무강좌
11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는 12월11일 오후 2시부터 포천여성회관에서 포천시 관내 전 사업장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2006년도 달라진 개정사항▶연말정산 시기, 방법, 근로소득세액의 징수와 환급 등▶근로소득, 비과세 소득, 종합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결정세액 및 연말정산에 의한 징수(환급)세액의 계산▶주민세의 연말정산▶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 요령 등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를 제공하고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이나 기관 단체는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유선으로 12월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팩스번호 031-535-2932)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535-00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은 지난해 포천시청 초청 기업인과의 간담회 장면.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는 11월23일 오후2시부터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포천시청 초청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실태를 가깝게 다가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과 기업체에서 안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 논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활동에 있어 어려운 현안 문제를 포천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포천상공회의소 홍보 및 안내를 하여 비회원의 회원가입유도와 각종 행사 및 설명회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체가 좋은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기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대상은 포천시

전 사업장 대표·대표이사(임원)이며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후원해 마련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포천시장과 담당실과소장이 참석하여 업체에서 질의한 건의사항의 질의 답변시간을 가져 향후 유사한 애로사항도 포천시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내용을 차후에 업체에 통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12 영그린 하우스

먹거리 · 농사 · 허브 · 생태 체험농원



대표 이영우

주 5일 근무와 각 학교들의 주 5일 수업으로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농촌의 생활과 더불어 다양하고 알찬 농촌의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 1,983m2의 쾌적한 부지에 토마토 재배 하우스와 육묘장 시설을 갖추고 허브 농장, 농산물 판매장, 만화 동산 등 부대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영그린 하우스(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318-1 대표 : 이영우).

지난 1999년 2월 에 개장한 영그린 하우스는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 판

만들기 등 허브 체험, 꽃 묘 분갈이와 감자 고구마 캐기 등 농사체험, 만화관람과 만화 그리기, 캐릭터 사진찍기 등 검정고무신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관광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가족단위, 학생단위, 직장인 단위로 구분해 예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진흙체험과 간강 체험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영그린 하우스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먹거리 체험 : 두부 만들기(요리), 인절미 떡 메치기, 허브 감자전 ▶농사체험 : 감자 및 고구마 캐기, 토마토 · 딸기 따기, 꽃묘 분갈이, 두레박 물뿌리기 ▶허브체험 : 허브비누, 허브양초 만들기 ▶생태체험 : 실개천 미꾸라지 잡기, 메뚜기 잡기, 반딧불 잡기 ▶추억체험 : 자전거 타기, 풀렁시 놀리기, 설매타기, 팽이치기, 널뛰기 ▶검정고무신 만화체험 : 나노 검정고무신 만화가가 되려다. 만화관람, 캐릭터 사진찍기, 싸인받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일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0시30분 농장에 도착한 후 11시 두부 만들기 체험, 12시 점심식사, 13시 만화체험, 14시 허브비누 만들기, 15시 고구마 캐기, 16시 귀가 등의 시간으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

주말을 이용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용으로 농촌체험 학습과 가족사랑을 재확인하는 자리

광농원으로 전환해 2002년부터 시설 하우스내 작물을 화훼로 바꾸어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곳 명덕리에서 태어난 이 대표는 1965년 포천군 4회 연합 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농촌에 기여한 공로와 농촌 사랑을 몸소 실천한 장본인이다. 수년간의 서울생활을 마치고 귀향한 이 대표는 다리 난간 꽃화분 설치 방법으로 한내교와 반월교에 꽃화분 다리를 설치에 예술과 문화가 함께 어울어진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왔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해 시의원예부분에서 자랑스런 농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3년부터 국도 3호선과 47호선 국도변 화단 가꾸기 사업에 적극 참여해 아름다운 꽃 남품을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두부와 인절미 만들기 등 먹거리 체험, 비누와 양초

그램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설 하우스 내에서 미꾸라지를 직접 잡아서 소금물로 씻어 즉석에서 제공한 양념을 이용해 추어탕을 끓여 먹을 수 있고 적당하게 삶은 미꾸라지를 직접 만든 두부 속에 넣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기름에 튀겨먹는 맛은 먹어본 사람이 참 맛을 알 수 있다고 이 대표는 귀뜸하고 있다.

서울 등에서 영그린 하우스를 방문 시에는 서울의곽순환 고속도로로 퇴계원 IC에서 나와서 포천방향 47번 국도를 이용 서파 검문소에서 좌회전해 300M 진행후 우회전하여 명덕레저 운전을 지나 1Km 지점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031)532-1454. HP 016)340-8675. http://www.farmstory.com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약 1,983m2의 쾌적한 부지에 토마토 재배 하우스와 육묘장 시설을 갖추고 허브 농장, 농산물 판매장, 만화 동산 등 부대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영그린 하우스

재테크 14

연말정산 - 꼼꼼하게 절세하는 방법

11월도 어느덧 중순인데다가 날씨가 차가워지니 벌써 한해가 다 가가는 같다. 이럴 때 떠오르는 것 두 가지, 깊이 모라모라 나는 호평과 연말정산. 이미 일간지에서는 연말정산 요령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잘 활용하면 내년 1월 월급통장에 그간 원천징수 당했던 세금을 상당부분 환급 받게 된다. 송년회 등으로 마음이 들뜨기 전에 내 돈부터 챙겨보자. 이 때 자신의 소득세율을 알면 환급 받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주민세 포함)
1,000만원 이하	8.8%
1,000만원 ~ 4,000만원 이하	18.7%
4,000만원 ~ 8,000만원 이하	28.6%
8,000만원 이상	38.5%

연소득이 3,000만원인 직장인 김과장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공제된다.

(예)신용카드 사용액 800만원, 연소득의 15% 초과분은 350만원, 350만원의 15%인 525,000원이 소득공제 대상. 소득세율 18.7% 적용하면 실제로 환급받는 액수는 98,000원.

▶연금보험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저축)은 작년까지 한도가 240만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전 금융권이 개인당 한구좌만 가입 수 있다.

어떤 금융상품보다 소득공제액이 크므로 직장인이거나 누구나

가입을 할 만하다. 단, 55세 이후 5년 동안 연금으로 타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만일 중도 해지하면 해지금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에 유의할 것.

(예) 매월 25만원씩 연 300만원 납입, 소득세율 18.7%를 적용하면 561,000원 환급.

▶장기주택미려저축

소득공제에 7년 가입 시 비과세까지 되는 금융상품. 따라서 가입이 까다롭다.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m2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 연 300만원 월납 시 2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소득세율 18.7%를 반영하면 224,400원 환급

▶보장성 보험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보장성 보험은 소득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질병·장해·상해·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과 자동차보험 등을 말한다.

(예) 연 납입액 100만원의 소득세율 18.7% 적용 187,000원 환급 이상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김과장이 환급받는 세금은 총 1백7만400원이다. 조금만 부지런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되찾을 수 있는 내 돈이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②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실 씨는 음식점을 해보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은 되지 않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 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마거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그 전에 양도하여서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때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3년 이상 보유"라 함은 보유기간 중에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절세방안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 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김성실 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용도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 폐업신고와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공부정리가 어렵다면 양도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다. 이 건의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 매매물건의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
- 전기요금납부영수증(가정용)
- 날자가 찍힌 주택사진(내부 및 외부)
-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대명세서
- 기타 당해 건물이 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압력밥솥을 타용도로 사용 위해 내압 시험 중 뚜껑 비래



재해발생상황도

▲재해발생 개요 소형인쇄기 잉크공급장치로 사용된 압력탱크 대신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압력탱크 정도를 시험하던 중 압력밥솥 뚜껑 잠금 부분이 파손되어 비래하여 좌측 어깨를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주변의 전동지게차 포크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가. 제품의 목적의 사용 압력밥솥을 받음 있는 용도가 아닌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등 목적의 다른 용도로 부적합하게 사용하였음.

나. 사용 압력 이상으로 과다압력 주입 밥솥의 사용압력(0.7kgf/cm)을 초과한 압축공기를 레귤레이터(조정압력 : 7.1kgf/cm)를 통해 계속 주입하자 뚜껑 잠금 부분이 파손되어 비래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제품의 목적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모든 기계·기구 및 밥솥 등 제조 당시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의 사용금지 하여야 함.

나. 압력밥솥장치 토출압력설정 밥솥장치는 국가표준기관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압력을 시험한 후 납품으로 봉인하고 용기의 설계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게 설정.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공무원 19년, 국민연금 9년 양쪽 모두 기간을 못 채우면?

부처간 이견으로 현재 양쪽 연금 모두 못 받아 향후 보완예정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연금마다 각각 다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연금제도를 바꾸는 사람들은 어느 불이익을 받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공무원으로 19년 미만을 재직하고 60세에 도달하는 사람이 어느 쪽에서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 물론 이 경우 모두 납부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시금뿐만 아니라 60세 이후라도 가입기간을 연장,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제도 간 연계문제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연계방안으로서 '연결통산방식'과 '소급적용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 양면성을 갖고 있다.

우선 연결통산방식은 양 제도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소급적용방식은 연결통산방식에 비해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소급적으로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적연금 연계기확단'에서 연계방안을 검토한 결과 연결통산방식을 연계방안으로 제시했으나 관련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이 보류된 상황이다.

양 제도 간 연계는 목적과 내용이 크게 다른 두 제도를 상당수준 일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연금제도의 개혁 부담문제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에 의한 추가적인 재정부담까지 발생해 해법에 대한 제도 간 합의의 도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 031-544-8700